

Open Mobile Terminal Platform(OMTP)

임 종 태 SK텔레콤 Access 기술연구원장
 김 후 중 SK텔레콤 Terminal 개발팀장
 이 은 복 SK텔레콤 Terminal 개발팀
 김 성 윤 SK텔레콤 Terminal 개발팀

1. Introduction

기존 음성 서비스 중심이었던 유럽사업자들은 3G 이동 통신의 상용화 시작으로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과 UI(User Interface)를 기반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간의 호환성 보장과 이용자의 편의도모에 따른 각종 부가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국제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OMTP는 2004년 2월 보다폰, 티모바일, O2, 오렌지, 허치슨 등 GSM 사업자를 중심으로 휴대폰 운용체계 및 플랫폼 요구사항 개발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현재 9개 사업자와 35여 개 업체의 스폰서 및 어드바이저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OMTP에 대한 개요와 Atlanta F2F 회의(11.6~9) 결과를 소개한다.

2. OMTP Overview

2.1 활동 목적

OMTP는 각 사업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며 단말 포트

폴리오에 지속적인 가입자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개방 Ecosystem을 제정하며, 주요 활동 Scope은 아래와 같다.

- 공통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개발로 단말기 이용환경의 표준화
- 제조업체와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급자들이 개방형 모바일 단말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프레임워크 확립

2.2 회원구성 및 의장단

OMTP Membership은 Full Member와 Participant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Board of Directors

OMTP 의장단은 현재 9개 사로 구성되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투표, 각 Project 승인 등 OMTP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 텔레포니카, SK텔레콤, 티모바일, 보다폰, 허치슨 3G, 텔레너, 오렌지, 텔레콤이탈리아, 싱골러

이와 함께 의장단은 마케팅, 재무, 인사 등 3개 분과로

Class	Level	Board Eligibility	Participate in Working Groups	Terminal Platform Committee Eligibility	Marketing	Annual Fees
Member	Full	Yes	Yes	Yes	Yes	€ 70,000
Participant	Sponsor	No	Yes	Yes	Yes	€ 70,000
	Advisor	No	Yes	No	No	€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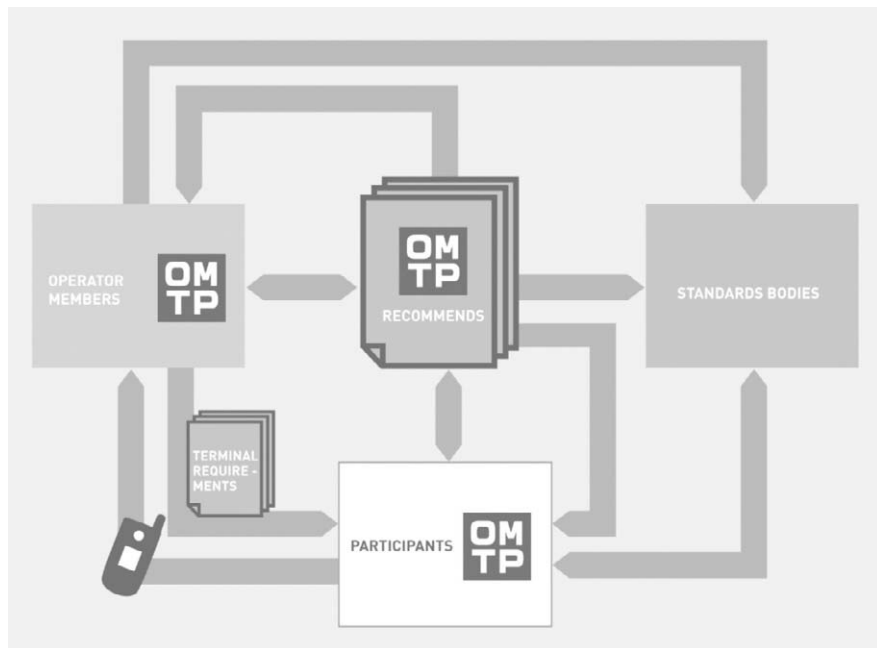
나뉘어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CDMA 사업자로 유일하게 SK텔레콤(임종태 원장)이 OMTP 의장 단 및 마케팅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OMTP의 대외홍보 및 아시아권 신규 회원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2.3 활동현황

Member와 Participant들의 아이템 제안을 통해 Board의 승인을 거쳐 각 Working Group에서 Recommendation이 작성되어 각 사업자의 요구사항을

OMTP 프로세스를 통해 공통된 Format을 제조사에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발간된 권고문은 OMTP와 관련된 표준 기구를 통해 표준화(Influence)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표준화 기구로는 SDO, OMA, JCP, LIPS, 3GPP 등과 Liaison 및 협의하고 있다.

또한 OMTP는 Product Profile Process를 구축하여 자체 인증 프로세스를 발급함으로써 회원사 개발 솔루션에 대해 Compliance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베타 버전이 운영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최종 Board 승인을 거쳐 Full 버전 배급을 계획하고 있다.



3. Atlanta Meeting Summary

3.1 개요

- 일시 : 2006. 11. 6 ~ 9
- 장소 : 미국 Atlanta Grand Hyatt Hotel
- 참여 : 이동통신사업자, 단말제조사, 솔루션 및 부품 업체 등 50여 명 참가

3.2 회의내용

User Experience, Software, Hardware, Security 등 4개의 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각 WG별 담당 Project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이미 발간된 Recommendation에 대해서도 Update 및 Maintenance 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User Experience WG

- Instant Messaging(Lead by T-Mobile)
T-Mobile에서 제안 과제인 Instant Messaging Client Requirement 논의가 Kick-off되어 Working scope 및 Framework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SMS기반의 저가단말 사용자에게 IM 서비스에 Legacy를 지원하는 Guideline을 제시하였으며 SW그룹에서 OMA IMPS 규격을 Reference하여 작업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Software WG

- IMS Framework(Lead by Telefonica)
지난 9월 시작된 IMS는 향후 IMS 지원 단말에서의 성능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요구사항을 확립하여 시장분열을 최소화하고 단말에 적합하도록 IMS

Application을 통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말에 따라 Lightweight와 Full Profile으로 구분하고 JSR-281의 API를 Reference 및 협력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 Management of Devices(Lead by Orange)
사업자가 원격으로 단말기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Mechanism을 구현하는 기술로 서버와 장치는 관리 트리를 통해 장치에 존재하는 실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Antivirus 관리, Firmware Update Over the Air, Software Management, Process 관리 등이 주요 아이টে이프로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해 나가며, OMA DM 규격을 Reference하나 Gap 분석을 통해 Cover되지 않는 부분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완료하여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 Data Transfer
작년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아이টে이프로써 사용자 및 단말 등록 정보(Device Configuration Data), 네트워크 정보,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관리를 정의하고 단말기내 모든 데이터 관련된 저장, 전송, Sync, 관리 등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Board 승인을 거쳐 내년 2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현재 Smart Card, Over the Air 등을 통한 업데이트를 함에 있어 백업 및 복구 정보에 대한 사용자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단말과 단말 간의 데이터 전송 관련 사용자 권한, 백업 요구사항이 논의 중이다.

Hardware WG

- Advanced Trusted Environment(Lead by Orange)
하드웨어 상 구성요소에 대한 보안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Profile, 요구사항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에 Security 그룹과도 공동 진행 중이다. 특히 단말시장에 출시되는 Flash Memory 관련 실리콘 업체인 Freescale, Spansion, Intel 측에서는 보안 Specific 요구사항 이슈에 개발 상의 문제점을 제기

하였다.

- Local Connectivity(Lead by Nokia)
오디오, 데이터 등의 연결을 위한 I/O Connector 표준화 작업을 추진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USB 포럼 규격인 USB 표준형, Mini, Micro 형태를 수용하는 제안이 논의되었다.

Security WG

- Application Security Framework(Lead by Orange)
사용자 환경에서 Malware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단말기의 Application 실행환경을 지원하는 Application Security Framework을 규정하고 있다. 이 ASF는 모바일 Application이 신뢰할 만한 환경에 있는지 정의하는 Execution/Prompting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올해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3.3 차기회의 일정

- 2006. 12. 13~14 Board & All Hands Meeting (Madrid, Spain)

- 2007. 1. 22~25 Working Group Meeting(미정)

4. Conclusion

주요 OMTP 회원인 유럽사업자들은 올해 말까지 OMTP Recommendation을 Reference할 것이라고 All Hands 포럼을 통해 표명하였으며, 이미 Telefonica는 '05. 12월 Open OS 단말에 첫 적용하였다. 각 사업자별로 내부 요구사항 수립절차와 연관되어 차기 버전에 반영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제조사에서도 안정화된 Display, Codec, Cameras, Device Management, Customization 규격에 대해 단말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로드맵에 개발 반영함으로써 차기 모델에서 확대 적용될 것이다.

국내 사업자 중 유일하게 활동중인 SK텔레콤은 OMTP와 같은 Global 표준화 참여를 통해 무선인터넷 표준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여 국제 무대 영향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국내 플랫폼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산 단말 플랫폼인 위피의 글로벌 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TTA**